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안군은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6주간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에 현년도 체납액의 60% 정수에 목표를 두고 중점추진하며,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급여 등 각종 실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 추진하여 체납액 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고려해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개별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고창군이 1월1일 기준 관내 22만9488필지와 개별주택 1만 8825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3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이를 반영한 결과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i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제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정무24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활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한옥학과 정규학과 개설 확정

전북대 교수협, 평위원회 심의 거쳐 고창캠퍼스 확정 공표

고창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의 한옥학과 정규학과 개설이 확정됐다.

지난 28일 고창군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내 한옥학과 정규학과 개설을 공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직후 전북대학교와 MOU를 맺으며 고창캠퍼스 한옥학과 정규학과 편성에 노력해 왔다. 전북대 측도 한옥문화캠퍼스 추진에 동참하며 정원조정위, 학무위, 교수협,

평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역거점대학의 계약학과(산업체 근로자 위주)가 정규학과로 확대 개편되면서 고창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해지면서 청년인구 증가 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11년 2월 한국폴리텍 고창캠퍼스 폐교 이후 타 지역으로 떠나가던 고창지역 고3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고등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한옥건축은 대표적 노동집약 사업이다. 숙련 기술인력을 비롯해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목재와 황토벽돌 등 한옥자재 생산업체 육성에도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민선8기 고창군은 음식과 연계해 이야기가 있는 한옥민속마을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류스타 비와 공유가 머물고 간 한옥호텔은 반년치 예약이 동남 만큼 인기를 끌고 있고, 바로 옆 동리정사를 재현한 신재효관소리공원이 개관(5월14일)을 앞두고 있다. 민속놀이체험장과 한옥게스트하우스 등도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향사랑답례품 다양화

부안군, 답례품목 17개 추가 선정... 공급업체 추가 모집

부안군은 최근 열린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17개 답례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 1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22개 품목, 28개 공급업체, 53개 상품을 선정한 바 있다. 이로써 부안군의 답례품목은 총 38개 품목에 70개 상품으로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품목에는 축산물 분야에 한돈 꾸러미, 가공식품 분야에생강청, 떡, 진빵, 오디잼, 뽕주, 그라주, 김치, 관광체험 분야에 물놀이장 이용권, 오디수확체험, "부어노르" 농촌관광프로그램, 위도 치유의 숲 체험권, 선상누시체험권, 지역서비스 분야에 별초대행서비스, 마실 영화관 이용권, 생활용품 분야에 참뽕죽업 비누, 반려동물 비누로 부안을 대표하는 특산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으로 총 17개 품목이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2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하고 접수된 업체에 대해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역자원 활용, 답례품의 안정적인 배송 및 품질관리, 지역 정체성 및 상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부안군민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 프로그램과 부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보다 다양한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은 청년 정책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실내 복합놀이시설 '천사히어로즈' 2일 재개장

정읍시, 3주 휴장기간 안전 점검... 새로운 체험시설 설치 등 시설물 보강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 실내 복합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5월 2일 재개장한다.

시는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장하고 이 기간 안전 점검과 함께 새로운 체험시설물 설치 등 시설물 보강을 마치고 5일 어린이날에 앞서 개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새로 설치된 시설은 에어리얼 로프(Aerial Rope) 체험코스과 트릭아트존(Trick art zone)이다.

먼저, 에어리얼 로프 코스는 천사히어로즈 놀이시설 중 방문객 선호도 조사 1위로 선정된 시설로서 연속적인 공중 체험 놀이가 가능하다.

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

중체험 코스를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체험코스 길이는 60m에서 107m로 연장했다.

트릭아트존은 2층에 설치됐다. 깊은 바다 속 문어와 조개, 고래, 거북이 등을 증강현실(AR)로 표현하고 있다. 천사히어로즈 핸드폰 어플을 설치하면 촬영 위치에서 다양한 심해 생물들이 살아 숨 쉬는 증강 현실 세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전용 앱을 개발, 천사히어로즈 방문 어린이들의 인기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히 휴장 기간에는 시설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 점검도 실시

했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응에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층 전망 테라스와 판매시설 설치도 6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2층 전망테라스는 문화광장에 조성될 순환열차와 동화마을, 익스트림스포츠 등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아이들과 동반한 부모들이 아이들이 즐기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층에는 이외에도 카페와 스낵 등의 판매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내장산문화광장 체험존 범퍼 보트 운영

정읍시가 5월 2일부터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 체험존(Zone)의 범퍼보트를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운행 보트는 모두 20대이다.

이용 요금은 2인용 1대 당 15분에 7,000원, 30분에 1만원이다. 단, 정읍시민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2,0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물 위의 범퍼카"로 불리는 범퍼 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시설이다. 만 15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정읍천과 부전천이 합류되는 지점 6,500㎡에 모두 7억원이 투입된 수상레저 체



범퍼보트는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 조성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범퍼보트 외에도 계류장(52mX5.5m)과 화장실, 창고, 매표소를 갖추고 있다. 이 일대는 정읍관광의 핵심시설인 천사 히어로즈와 국민여가캠핑장, 워터파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구축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읍=김대환기자

세계잼버리 참가국 대표단장 잼버리 개최지 부안 방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참가국 대표단장들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잼버리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안 새만금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53개국 대표단장 160여명, 세계잼버리 관계자 190여명 등 총 350여명으로 구성되어 세계잼버리 추진상황, 영외과정활동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특히, 세계잼버리시 이루어지는 입·퇴영 프로세스, 잼버리 병영 운영, 야영 안전관리, 영내·외 과정활동, 급식 등 세계잼버리가 90여일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점검에 주안점을 두었다.

부안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한 영국 대



표단장(리즈워커)은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거라며,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이 체험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싶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세계잼버리에

참가하는 150여개국 43,0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부안만의 특별한 기억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외과정활동 프로그램 준비와 함께 우리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악취민원 위한 '5729 악취 대응반' 운영

정읍시는 공무원 근무 시간 외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729 악취대응반을 운영한다.

5729 악취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악취 민원 전담 행정번호 ☎063-539-5729를 의미한다.

대응반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명으로 운영되며 2인 1조 교대근무로 이루어진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6시까지) 악

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 지도 활동도 펼친다.

이와 함께 필요 시에는 악취 시료 포집을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하게 된다.

한편 시는 대응반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경정책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2인 1조 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